KWDI 해외통신

2023년 10월 (2023.10.1~10.31)



스코틀랜드 SCOTLAND



스코틀랜드 의회, 성평등한 의회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 시행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 ✔ 2022년 2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장(Presiding Officer; PO)인 앨리슨 존스톤(Alison Johnstone)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기준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47%로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수립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의원이 의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느끼고, 돌봄, 직장내 성차별 등과 같이 성차별적 이유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해당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 스코틀랜드 의회는 해당 감사의 추진배경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의회(Gender Sensitive Parliament)'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의회 내 평등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여성이 선출된 후 의회 내에서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공유하고, 의회의 업무와 성과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우선시되고 주류화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 그 결과, 스코틀랜드 의회는 2023년 3월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의 내용이 기술된 '모두를 위한 의회(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의 내용이 담긴 '모두를 위한 의회(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의 개요 및 제언 내용과 함께, 의회의 후원을 받아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을 하는 'Elect Her'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 모두를 위한 의회 (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 개요 및 제언 내용
 -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1) 의회 내 여성 대표성, 2) 의정 참여 현황, 3) 의회의 전반적인 문화와 정책, 4) 의회 업무의 젠더 주류화 현황 및 향후 방향

참고자료

- The Scottish Parliament (2023.03.03), "A Parliament for All - Reforms to strengthen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at Holyrood unveiled",
 - https://www.parliament.scot/about/ news/news-listing/a-parliament-forall-reforms

(접속일: 2023.10.22.).

- The Scottish Parliament (2023.03),
 "A Parliament for All:Report of the Parliament's Gender Sensitive Audit",
 https://www.parliament.scot/-/media/files/spcb/gender-sensitive-audit.pdf
- (접속일: 2023.10.22.)
- The Guardian (2022.02.11.),
 "Scotland launches women's audit to look at barriers to entering Holyrood",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feb/11/scotland-launches-womens-audit-to-look-at-barriers-to-holyrood-alison-iohnstone

(접속일: 2023.10.22.).

- 감사는 상임위원회 결정, 의회 보고서, 절차적 지침, 의회 문서, 그리고 스코틀랜드 의회 정보센터(Scottish Parliament Information Centre; SPICe)에서 수집한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했다. 뿐만아니라, 스코틀랜드 의회에 대한 경험, 태도 및 의견을 주제로 전·현직 의원 13명과의 반구조화(semi-structured)면접과 의회 직원들과의 비공식적 토의를 병행했다.
- 감사 결과는 성인지 감수성은 수치로 보여지는 여성의원의 비율로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층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필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과대 대표되는 성별이 나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재정(Finances), 감사(Audit), 권한 이임 표준 및 절차(Standards and Procedures and Delegated Powers) 위원회는 대체로 남성이 과대 대표되고, 여성은 평등, 인권 및 민사 사법 위원회 (Equalities, Human Rights, and Civil Justice Committee)에서 과대 대표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의회 업무 참여 수준은 여성의원 비율과 비슷하지만, 의정 활동 시 발언이나 토론 중에 개입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의원은 행정수반과의 질의응답(First Minister's Questions)에서 발언하는 비율이 낮고, 남성의원은 토론에 개입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여성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의회 내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이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원들은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회의 가족 친화적 정책 변화에 대해, 재택근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돌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연성과 업무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여전히 연장 근무 시간 등과 같이 의회의 근무 환경이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성 주류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의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모두를 위한 의회 (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제언했다.
 - 1) 위원회, 의회 사무국, 스코틀랜드 의회 법인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 변경
 - 2) 단일 성으로만 구성된 의회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규칙 변경
 - 3) 여성의원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설립
 - 4) 의회 근무 시간 데이터를 검토하여 근무 시간의 예측 불가능성을 제한하고 근무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결정
 - 5) 육아휴직, 질병 및 간병/사별 휴가를 위한 대리투표 제도의 영구적 도입
 - 6) 권고사항의 이행을 감독하고 지속성을 위한 자문 그룹 설립

- The Scottish Parliament
 (2023.06.24), "Hundreds of women
 to be part of an event to encourage
 more women into politics",
 https://www.parliament.scot/about/
 news/news-listing/hundreds-ofwomen-to-be-part-of-event
 (접속일: 2023.10.23.)
- ElectHer (2023), "Who We Are", https://www.elect-her.org.uk/ (접속일: 2023.10.23.)

- ∮ 'Elect Her': 스코틀랜드 의회가 후원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단체
 - 'Elect Her'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후원을 받아 온라인 워크숍과 자료를 제작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이 리더, 입법자,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본 단체는 지금까지 약 3,000명의 여성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11명의 여성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그중 2명이 당선되었다. 2022년 스코틀랜드 지방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54명의 여성 입후보를 지원했으며, 그 중 27명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6월에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Women GatHER"라는 행사를 주최하여,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의회 입성이나 정치 참여에 관심이 있는 수백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처럼,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원 비율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의회 감사(Gender Sensitive Parliament Audit)' 부터 여성의 의회 참여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의 후원까지 다각도로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의회(A Parliament for All)' 보고서의 제언에서 나온 바와 같이, 감사 내용과 보고서의 제언을 지속성 있게 적용하고 유지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하원,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관련 개정법안 가결

곽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 ✓ 2023년 6월, 이탈리아 정부는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다. 새 법안은 예방 및 경고 시스템 강화, 새로운 접근금지명령 조건 추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가해자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안은 최근 상원에서 가결되었으며, 2023년 9월에는 하원에서 찬성 200표, 기권 61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다.
- ✔ 이번 법안의 정부 가결 소식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당시, 유지니아 로첼라(Eugenia Roccella) 가족·출산·평등 기회 정책 장관(Minister for Family, Natality and Equal Opportunities)은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여성 대상 폭력 철폐 관련 법을 제도적으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 내용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효율성을 위해 제도적 절차는 한층 간소화하면서도 예방 측면은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밝혔다.
- 이탈리아에서는 2019년부터 일명 '코드 레드(Code Red, Codico Rosso)'라고 칭하는 여성대상 폭력 관련 형법 개정에 관한 법(Law No. 69/2019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other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domestic and gender violence)이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일명 리벤지 포르노, 상대방의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6년의 징역형과 더불어 최소 5,000유로(한화 약 720만 원)에서 최대 15,000유로(한화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도입했다. 특히 가해자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이거나 파트너, 가까운 관계였던 사람인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명시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 ✓ 최근 가결된 법안은 새로운 코드 레드라고도 불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잠재적 가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경고 측면도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당국에서 일정 수준의 수사가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수사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 있는 사람이 이전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여성에게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경찰은 가택연금을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최소 500미터를 유지하는 거리두기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구금 조처를 할 수 있다.
- ✓ 이번 법안에서는 이번 법안은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 측면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절차도 개선하고자 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여성 대상 폭력 관련 재판이 우선순위로 배정되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한다고 하나, 그 기준과 내용이 불분명했다. 본 법안에서는 검사의 사건 심사나 법원의 사전 예방 조치 요청 검토 및 승인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유효 기한은 확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사건 발생 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참고자료

- Euronews (2023.6.9), "A brutal murder has prompted Italy to boost its laws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Is it enough?", https://www.euronews.com/2023/06/09/a-brutal-murder-has-prompted-italy-to-boost-its-laws-against-gender-based-violence-is-it-e (접속일: 2023.10.20.).
- Il Post (2023.6.8), "Il nuovo disegno di legge contro la violenza sulle donne",
- https://www.ilpost.it/2023/06/08/ nuovo-disegno-di-legge-violenzasulle-donne/
- (접속일: 2023.10.20.).
- Openpolis (2023.3.1), "Resta alto il numero di femminicidi in Italia e in Europa",
 - https://www.openpolis.it/resta-altoil-numero-di-femminicidi-in-italia-ein-europa/
 - (접속일: 2023.10.20.).
- Rai News (2023.9.7), "Violenza sulle donne: via libera della Camera alle nuove norme sul Codice rosso," https://www.rainews.it/articoli/2023/09/violenza-sulledonne-via-libera-alla-camera-alle-nuove-norme-sul-codicerosso-f14ceaa7-5221-4625-a3c8-58b37c7e4c12.html

- ✓ 이탈리아는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2023년 초 의회(상·하원) 내 여성 대상 살해 및 젠더기반 폭력에 관한 조사 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안(Law no.12 of 2023)을 가결하고 실제로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당 위원회(Commissione di Inchiesta sul Femminicidio e le Violenze di Genere)는 그동안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나 예방 및 철폐 조치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여성 살해 및 젠더 기반 폭력 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티나세멘자토(Martina Semenzato)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좀 더 보강해야 할 조항들도 있었지만, 우선현재 상정된 개정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 ✔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평등기회부(Department for Equal Opportunities)의 관할하에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핫라인 1522을 운영 중이다. 폭력 및 스토킹 등과 같은 젠더기반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개인은 익명으로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폴란드어 등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핫라인에서는 경찰과 즉각 연계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
- ✓ 이번 법안은 29살의 7개월 임산부 여성이 본인의 파트너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해당 사건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미 시행 중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에서 여성 대상 폭력 및 살해 사건들로 인해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를 간과하지 않고 기존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 ✓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젠더 기반 폭력 철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87개 단체 및 106개 반폭력센터로 구성된 네트워크인 D.i.Re의 부회장인 엘레나 비아지오니(Elena Biaggioni)는 유로뉴스(Euronews)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대상 폭력 및 살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고착된 상태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이 앞으로 여성 대상 폭력이나 살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하다.